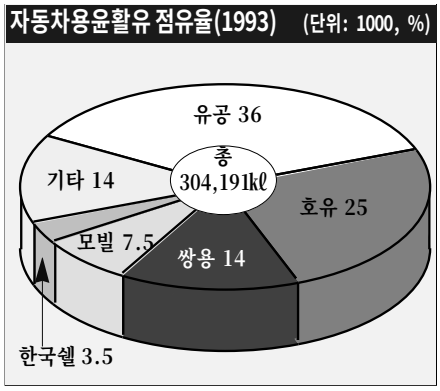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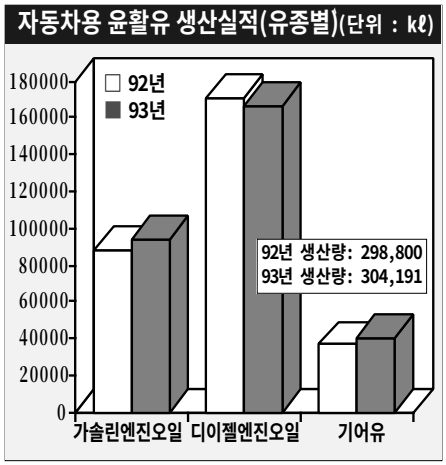
SH급 엔진오일“급성장"

품질 고급화 추세로 … 전체시장 점유율 75% 예상

자동차 엔진오일의 고급화 추세가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SG급에서 SH급으로의 시장대체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93년 전체 윤활유 시장은 공급 79만kℓ에 판매 78만여kℓ로 92년 공급량 72만1246 kℓ에 비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자동차용은 30만4191kℓ로 전체시장에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92년 29만8800kℓ에 비해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차용 윤활유에서 엔진오일의 비중은 90%로, 92년 26만467kℓ가 판매(가솔린 엔진오일 9만4281kℓ, 디이젤 엔진오일 16만6186kℓ)됐으며, 기어유로는 3만9074 kℓ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함께 고급 엔진오일에서 SH급과 SG급의 93년 하반기(7월이후) 점유율을 보면, 55대45 정도로 시판초기부터 시장의 절반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올해에는 75% 이상 SH급으로 대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시장판도 변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SG급 엔진오일 시장이 일부기업의 원료 임의변경 및 규격미달의 제품생산, 판매에 따른 신뢰도 하락과 환경문제에 대한 각정부의 규제강화방침으로 고정제 기유를 원료로 한 SH급으로의 대체가 적극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SH급은 SG급과 비교하여 고온산화 안정성에서 21% 향상을 보이고 있으며 스럿지 생성에서도 19%가 향상됐고 연비평가와 베어링 부식성에서도 각각 7%와 13%의 우수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94년 SH급 엔진오일 시장규모는 7만여톤을 웃돌 것으로 예상돼 생산기업간 시장쟁탈전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자동차윤활유 시장의 기업별 점유율을 보면, 유공이 36%로 가장 높고 그 뒤를 호유 25%, 쌍용14%, 모빌 7.5%, 한국 쉘 3.5%, 기타 14%의 순으로 나타났다.

<화학저널 1994/4/11>